

『とはずがたり』의 敬語研究*

— 「参る」를 중심으로 —

都 基 禎**

(e-mail : kjdo@nsu.ac.kr)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4. 「参る」(奉仕スル/差シ上ゲル) |
| 2. 분석범위 및 선행연구 | 5. 「参る」(召シ上ガル/オ飲ミニナル) |
| 3. 「参る」(参上スル/参拜スル) | 6. 맺음말 |

키워드 : 参る(Mairu), 参上する(go/come to), 謙讓語(Kenjogo), 丁重語(Teichogo), 尊敬語(Sonkeigo)

1. 머리말

본 논문에서 자료로 사용될 『とはずがたり』는 중세 가마쿠라(鎌倉)시대인 1306년, 고후카쿠사인노니조(後深草院二条)에 의해 집필된 일기문학 작품이다. 전 5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권까지는 필자를 중심으로 하는 왕실 귀족들과의 사랑과 애육, 그리고 화려한 궁중 생활을 그린 내용이 중심이 되어 있다. 4, 5권에서는 출가해 각 지역의 명승지를 순례하면서 지난날을 회상하며 그 생애를 되돌아보는 내용이다.

현재 전해지는 사본은 구나이초쇼료부(宮内庁書陵部)藏本 뿐이고, 본 자료가 소위 상위자와 하위자라는 신분상에 있어서의 엄격한 상하 관계를 중시하는 궁중 생활을 주제로 다루는 만큼 상호간에 많은 경어를 사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분석할 「参る」는 원래 「行く」의 겸양어로서 하위자인 동작주(為手)가 가는 장소나 거기에 있는 상위자인 상대방(受け手)을 대우하는데 사용된 경

* 이 논문은 2020년도 남서울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남서울대학교, 교수, 일본어학

어였다. 즉, 본 자료에서 「参る」가 「参上スル」라는 의미로 사용된 「御所に参ぬ(券一、p.22)」와 같은 용례가 빈출한다. 마찬가지로 神仏에 대한 대우로서 동작주가 가는 장소에 敬意를 나타내기 위해 「春日の御社へ参りて(卷四、p.235)」와 같이 「参る」가 「参拜スル」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본 작품에 나오는 「参る」의 용례를 면밀히 살펴보면, 이상과 같은 의미와는 달리 「すでに御格子参る程になりて(卷五、p.228)」와 같은 용례에서는 「参る」가 「奉仕スル」라는 의미의 타동사 용법으로 쓰이고 있다. 또한, 「御太刀一参る(卷二、p.70)」와 같은 용례에 사용된 「参る」의 경우는 「参る」에서 사역의 의미인 「す」가 접속되어 하나의 단어로 된 「参らす」와 같은 용법으로 「差シ上ゲル」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뿐만 아니라 「参る」는 지금까지의 겸양어 용법과는 다른 「夕供御参る折、公卿たち、常の御所に候に、(券二、p.68)」와 같은 용례에서 보는 것처럼 「参る」가 「召シ上ガル」라는 의미인 존경어 용법으로도 쓰이고 있다.

以上,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参る」의 표현성에 주목하면서 이들 용례 분석을 통해 그 대우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以下 본 논문에 쓰인 용례는 岩波『新日本古典文学大系 50 とはずがたり』(三角洋一校注)에 의한 것이며 () 속에 각 인용 권수 및 페이지를 밝혀둔다.

2. 분석 범위 및 선행 연구

본 논문에서 분석할 「参る」는 본동사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한다. 「参る」는 보조동사로서의 용법은 없으나, 「명사+参る」형인 「物一」「女御一」

「熊野一」「今一」나 「近衛大殿も御参りあるべしとてありしに」와 같이, 존경어 형식을 취하는 「御一あり」는 분석에서 제외한다. 또한 복합동사형인 「동사+参る」형인 「たづね一」「かへり一」나 「参る+동사」형인 「一あふ」「一いづ」「一かよふ」「一そむ」「一つく」와 「参る+명사」형인 「一人」「一物」는 분석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参る」에 사역형인 「す」가 접속되어 하나의 단어로 형성된 「参らす」에 대해서는 이 「参らす」가 「参る」와 같이 「差シ上ゲル」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공유되는 부분이 있으나, 차후 연구의 대상으로

남기며 본 논문에서는 본동사 「参る」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参る」와 「参らす」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고전 작품을 중심으로 그 의미와 용법에 관해 연구되어 왔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宮地幸一(1980)의 『ます源流考』¹⁾를 들 수 있다. 宮地氏は 『源氏物語』의 「参る」「参らす」의 의미적 용법을 중심으로 한 연구와 平安朝 후기의 자료²⁾ 분석과 더불어 중세의 『平家物語』에 사용된 「参る」에서 「まゐらす→まゐらする→まゐらする→まする」로 변천하는 과정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이 밖에 선행연구로는 宮腰賢(1986)의 「まゐるの諸相」³⁾가 있다. 宮腰氏は 『源氏物語』에 사용된 「まゐる」를 『日本古典全書』를 비롯한 각 주석서의 해석을 비교 검토해 「参る」의 의미 용법을 분석하고 있다.

『とほすがたり』에 사용된 「参る」는 지금까지 연구된 적이 없는 만큼 본 자료에 쓰인 용례가 平安期の 용법을 계승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중세적 용법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면밀한 분석을 필요로 한다.

3. 「参る」(参上スル/参拝スル)

「参る」는 「行く」의 겸양어로서 동작주가 가는 장소, 또는 거기에 있는 尊者를 대우하는 경어이다. 대표적인 용례를 보면,

<1> 廿日頃には、さのみいつとなき事なれば、御所へ参りぬ。

(卷一、p.23)

와 같이 「参上スル」라는 의미를 가지는 이 「参る」는 하위자인 동작주 <작자>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에 있는 貴所나 상위자인 尊者에게 경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것이다. 『とほすがたり』에서는 「参る」가 신분에 따라 「参

1) 宮地幸一(1980) 『ます源流考』 桜楓社、pp.11-59.

2) 『狭衣物語』 『夜の寢覚』 『浜松中納言物語』 『とりかへばや物語』 『今鏡』

3) 宮腰賢(1986) 『まゐる・まゐらす考』 桜楓社、pp.7-51.

る」 「参らる」 「参り給ふ」를 사용하고 있으나, 궁궐의 최상급 신분을 대상으로 대우하는 「参らせ給ふ」의 사용례는 보이지 않는다. 먼저 「参上スル」의 의미인 「参る」의 미연형에 존경의 조동사 「る」가 접속된 형태인 「参らる」를 살펴본다.

<2> 前の関白、新院へ参られて候けるに、やや久しく御物語ども候けるついでに

(卷二、p.108)

<2> 「参られて」에 있어서 「参る」의 경의 방향은 「新院」이며 이때 「る」는 「前の関白」에게 대우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 두 방향 경어 형태의 「参らる」이다. 『とはすがたり』에서는 「参らる」가 「常住院の僧正」 「中納言」 「善勝寺大納言」 「隆弁僧正」와 같은 최상위 신분이 아닌 대상을 중심으로 4例 쓰이고 있다.

이 밖에 「参上スル」의 의미인 「参る」의 연용형에 「給ふ」가 접속된 「参り給ふ」는 본 작품에서 다음과 같은 용례가 있다.

<3> 今宵は、(院の処に)東の御方参り給べき気色の見ゆれば、夜さりの供御果つる程に、

(卷一、p.65)

<4> (私→さきがにの女) 「我もとに、いまだ新しき衣の侍るを着て、参り給へ今宵しも大事の事有て」など言へども、

(卷二、p.83)

용례 <3> 에서는 後深草院의 왕후인 「東の御方」의 동작 행위에 「参り給ふ」가 사용되고 있다. 『とはすがたり』에서는 존경의 조동사 「す」와 존경의 보조동사인 「給ふ」가 결합한 「参らせ給ふ」라는 이중경어 형태의 용례는 보이지 않는다. 「東の御方」가 최상급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3> 과 같이 「東の御方」의 동작 행위를 「参り給ふ」로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왕실의 최고 신분인 고후카쿠사인의 부인인 왕후의 동작행위에 겸양어인 「参る」를 사용한 것은 동작주인 왕후를 낮추기 위한 것이 아니고 고후카쿠사인(처소)을 대우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参り給ふ」의 경의 대상은 「参る」의 동작 대상(受け手)이 되는 고후카쿠사인이고 「給ふ」는 동작의 주

체(為手)인 「東の御方」를 대우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이 두 사람을 동시에 대우하는 경어 형식인 이러한 「겸양어 + 존경어」라는 두 방향 경어는 平安期 이후 널리 사용된 하나의 경어형식으로 본 작품에서도 그 용례를 찾아 볼 수 있다.

<3>의 「參り給ふ」는 <2>의 「參る」보다는 敬도가 높다고 판단되나 <4>와 같이, 오늘 밤 고후카쿠사인을 시중들어야 하는 신분이 불분명한 대상(ささがにの女)에게도 「一給ふ」를 사용하고 있다. <3><4> 용례 이 외에 「參上ナサル」의미로 사용된 「參り給ふ」는 「右大臣」「有明の月」「日本武尊」를 동작주로 하는 3예에 쓰이고 있다. 본 작품에서는 궁중생활을 그린 전편(1권~3권)을 중심으로 <1>~<4>와 같은 겸양어 용법의 「參る」가 빈출한다. 다음 다른 「參る」의 예를 보기로 한다.

<5> 明け行鐘の声聞こゆるに、例の下に敷く車前草の蒸したるを、仲光持ちて参りて、
(父に)「敷き替へん」と言ふに、
(卷一、p.26.)

<6> 又御母、(私に)「あなまがまがし。たれか参り候はん。御幸ならば、又何ゆゑか
忍び給はん」など言ふも、こもとに聞こゆる。
(卷一、p.37.)

<7> (雪の曙→私) 「かしこく今宵参りてけり。御渡りの折は、唐土までも白き色を尋ね
侍らむ」とて、うち笑はれぬるぞ、忘れがたきや。」
(卷一、p.37.)

<5>는 작자의 아버지인 「久我大納言」이 병환으로 누워있는 집으로 작자의 유모 아들인 「仲光」가 병문안을 온 장면이다. <5>의 「參る」를 「參上スル」라는 겸양어 용법으로 보면, 동작주인 仲光의 도착지는 작자가 거주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곳을 대우하게 되면, 작자가 스스로에게 경의를 나타내는 自敬表現⁴⁾이 되어 용법상 문제가 발생한다. 이 부분을 주석서에는 「參る」를

4) 自敬表現이란 천황 등, 특히 신분이 고귀한 사람이 대화문에 있어서 자신의 동작에 대해 존경표현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靜かに今昔の御物語ありて、(院)「無常の習ひも、あぢきなくおぼしめさるる」など、さまざま仰せありて、(卷一、p.22.)) 또한 상대방의 동작행위에 대해 겸양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ただいま御船に召さるるに、参れ」と仰せらるるに、(卷三、p.165.))

「来る」나 「訪ねる」로 현대어역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参る」는 누구를 대우하기 위한 경어인가가 문제가 된다. 표현주체인 작자가 화제의 인물이나 장소에 대해 경의를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라면, 「参る」가 사용된 이 부분이 地文이기 때문에 작품의 수용자인 불특정다수의 독자에 대한 경의적 배려를 나타내기 위한 표현으로 판단된다. 즉, 작자가 독자를 대우하기 위해 동작주인 「仲光」의 동작 행위를 낮추어서 표현한 것으로, 소위 宮地裕(1981)가 말하는 「丁重語」⁵⁾ 용법의 「参る」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丁重語는 平安中期 이후 대화문에 「侍り」를 중심으로 많이 사용되었고, 「申す」와 같은 일부 경어에서도 이 용법으로 사용된 예가 나오기 시작한다⁶⁾. 이러한 丁重語 用法의 「参る」는 다음 <6> <7> 과 같이 주로 대화문에서 청자를 대우하기 위해 쓰이고 있다.

용례 <6> 은 작자의 유모집에서 작자를 향해 유모가 말하는 장면이다. 유모집 근처에 세워둔 수레를 두고 나누는 대화이다. 만일 이 「参る」를 겸양어 용법으로 본다면, 화자인 유모가 자신이 살고 있는 장소(受け手)를 스스로 대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自敬表現이 되고 만다. 「参り候はん」이라는 표현을 보더라도 화자인 유모는 청자인 작자에게 매우 정중한 말투로 대하고 있으며 이 「参る」의 경의 방향은 청자에 있다. 즉, 이 「参る」는 丁重語 용법의 「参る」로 화자가 청자인 작자에게 경의적 배려를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용례 <7> 은 작자의 애인인 「雪の曙」가 작자의 유모집에서 작자와 나누는 대화이다. 「かしこく今宵参りてけり」(今夜はほんとうにいいところに来ました)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기서 말하는 장소는 궁궐이나 貴所가 아닌 유모의 집을 말한다. 따라서 「参上スル」라는 의미의 「参る」로 볼 수 없고, <5> <6> 의 「参る」와 마찬가지로, 「訪ねる, 来る」라는 의미로 쓰인 「参る」로 청자인 작자를 대우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参上スル」의 의미인 「参る」와 같은 겸양어 용법으로 볼 수 있는 다른 용례를 보기로 한다. 「参上スル」의 의미인 「参る」는 동작주가 가는 장소가 궁궐이나 貴所인 경우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장소

5) 「話題のものごとの表現をとおして、話し手が、聞き手への敬語的配慮を表す敬語」(宮地裕(1981)「敬語史論」『講座 日本語学 9 敬語史』明治書院、pp.9-10.)

6) 「かの白く咲けるをなむ夕顔と申侍。」(源氏物語、夕顔)(都基禎 1993 「『とはずがたり』의 待遇表現-謙讓語와 그 주변을 중심으로-」『日語教育』9, 韓国日本語教育学会, pp.155-176. 참조)

로의 이동에도 「参る」가 사용된다.

<8> 我は日吉へ参りしかば、祖母にて侍り者は「この御社にて、神思をかうぶりける」
とて、常に参りしに具せられては、(中略) 春日の御社へ参りて、本宮の峰に納め
たてまつりしにも、.....

(卷五、p.235.)

<9> 中宮寺といふ寺は、聖徳太子の御旧跡、その後の御願など聞くもゆかしくて、参りぬ。

(卷四、p.192.)

<10> 御果ての日にもなりぬれば、深草の御墓へ参りて、伏見殿の御所へ参りたれば、
御仏事始まりたり。

(卷五、p.238.)

「参上スル」 의미인 「参る」가 절대자나 貴人인 있는 장소로 가는 동작 행위에 쓰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용례 <8> ~ <10>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사, 절, 묘소 등, 神仏과 관련된 신성한 장소로 가는 이동 행위에도 「参る」가 사용되고 있다. 용법상으로는 「参上スル」 의미인 「参る」와 같으나, 해석상에는 「参拜スル/オ参リスル」라는 의미를 가진다. 본 자료에서는 작자가 궁궐을 나와 출가해 여러 지방을 순례하는 후편(4~5권)에 집중적으로 이러한 겸양어 용법의 「参る」가 頻出한다.

4. 「参る」(奉仕スル/差シ上ゲル)

<11> 御輿にて入らせ給。新院、やがて御幸、御車の尻に参る。

(卷一、p.16.)

<12> 今日の御葉には、大納言陪膳に参らる。

(卷一、p.3.)

<13> 上臥しに参りたるに、夜中ばかりに、下口の遣戸を打ちたたく人あり。

(卷一、p.4.)

「參上スル」 의미인 「參る」는 위의 <11>~<13>과 같이 점차 그 쓰임을 넓혀간다. 궁으로 입궐하고 나서 貴人을 위해 어떤 형태의 시중을 들어야 하는데 그 목적 의식이 표면으로 나타내게 되면, 이때 「參る」는 「參上スル」에서 「奉仕スル」라는 의미로 바뀐다. 용례 <11> 「參る」부분은 「新院의 행차가 있어 수레의 뒷좌석에 봉사하기 위해 동승했다」로 해석하는 것이 맞으며, 이 「參る」는 「奉仕スル=同乗スル」라는 의미를 가진다. 본 자료에서 이러한 형태의 「參る」는 「御車に一」, 「御尻に一」, 「一の車の左一」와 같은 용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12>의 「陪膳に參らる」는 「고귀한 사람의 식사에 시중을 들었다」라는 뜻으로 이 「參る」는 「奉任スル=給仕スル」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例로서 「今年の御の葉には、花山院太政大臣參らる。(卷二、p.66)」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부분은 「궁궐에서 고귀한 신분의 사람들이 정월에 액운을 피하기 위해 白散과 같은 약을 복용하는 의식에 시중을 드는 역할을 太政大臣이 맡았다」라는 의미로 주석서에서 「參る」를 「御葉の役に奉仕される」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11> <12>의 「參る」는 이 「參る」가 「參上スル」와 「奉仕スル」라고 하는 양면에 걸쳐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남는다. 즉 <11>의 경우는 「新院의 행차에 동행하기 위해서 입궐했다」라고도 볼 수 있고, <12>의 「參る」의 경우도 「왕실의 고귀한 사람의 식사를 시중드는 역할을 하기 위해 궁으로 들어왔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하다.

다음 <13>의 「參る」에서도 마찬가지로 왕의 침소에 숙직을 하기 위해 「參上スル」라는 의미로 볼 수 있으나, 문맥상 「왕의 침소에서 숙직을 하면서 시중을 들고 있는 중, 밤중에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다」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즉, <11>~<13>과 같은 「參る」에는 목적을 나타내는 「二」格을 동반하고 있어서 「參る」가 「~하기 위해서 입궐하다」라고 하는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다. 「參上スル」에서 「奉仕スル」라는 의미로의 이행단계로 판단되는 參る」의 용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14> 「御鞠の折に、ことさら御言葉かかりなどして、御覽じ知りたるに」とて、「明石の上にて、琵琶に參るべし」とてあり。(卷二、p.93.)

<15> 読師、左の大臣に仰らるる。故障にて、右大臣參り給。兵部卿、藤中納言な

ど、召しにて参る。(卷三、p.162.)

<16> 両院御幸、おなじやうに還御あり。一院には春宮大夫、新院には洞院の大納言ぞ、
のちのちに参り給。(卷三、p.136.)

다음은 「参る」가 「参上スル」에서 「奉仕スル」라는 의미로 완전히 이행된 용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17> 暮れぬれば、行啓に参りたる掃部寮、所々に立て明かして、(卷三、p.168.)

<18> 御所「御酌に参れ」と仰せ有しに、参るとて立ちざまに、(卷二、p.89.)

<19> 「龜山院の御立の頃、傳にて侍し者、六位に参りて、」(卷三、p.148.)

<17> 는 「날이 저물어 왕태자의 행차에 함께 시중을 들고 봉사한 설비를 담당한 관리가 여기 저기 불을 밝히고」라고 해석되며 여기에 사용된 「参る」는 「参上スル」라는 의미는 없고 그 의미가 「奉仕スル」로 완전히 이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18> 부분은 「고후카쿠사인이 "술잔에 술을 따라라"라고 하는 말씀에 술잔에 술을 따르려고 일어서려고 하는 순간.....」라고 해석된다. 「参る」가 상왕의 명을 받아 「술잔에 술을 따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이때 「奉仕スル」는 구체적으로 「盃にお酒を注ぐ」라는 동작 행위를 말한다. <19> 에 있어서는 「参る」가 쓰인 부분을 주석서에서 「六位藏人として奉仕して」로 해석하고 있어 「参る」에는 「参上スル」라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 <11>~<19>까지는 「参る」가 「参上スル」에서 「奉仕スル」라는 의미로 이행된 용례를 살펴보았다. 이들 용례는 주로 「参る」가 「二」格에 오는 구문적 특징이 있었다. 다음은 이러한 구문과는 다른 타동사적 용법인 「ヲ」格을 취하는 「奉仕スル」라는 의미를 가지는 「参る」의 용례를 보기로 한다.

<20> ことさらしめやかに、人なき宵の事なるに、御足など参りて、御殿籠りつつ、(卷三、p.116)

<21> 何事にかとて参りたれば、九献参るべきなりけり。(卷三、p.129)

<22> 大殿より、御事参るべしとて、又逗留あるも、又いかなる事かと悲しくて、局としもな
くうち休みたる所へ、 (卷二、p.113)

<23> 如房の衣を被きて、日暮らし御所にたたずめども、かなはぬに、すでに御格子
参る程になりて、 (卷五、p.228)

<20> 의 「御足など参りて」 부분은 「御足をおさすり申しあげる」 또는 「御足などを揉んでさしあげる」 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즉 하위자가 어떠한 동작 행위를 상위자를 위해 봉사를 할 때 사용되는 「ヲ」格을 취하는 「参る」로 「参上スル」라는 의미는 가지지 않는다. <21> 의 「九献参るべきなりけり」는 「お酒を用意しなければならぬ」라는 의미로 「奉仕スル」의 「参る」이다. 다음 <22> 에 있어서 「御事」는 궁중에서 열리는 연회를 말하며 이 때 「参る」는 연회를 준비하는 구체적인 동작을 나타낸다. 즉, <21>의 「参る」와 마찬가지로 「手配する」「仕度する」라는 의미의 「参る」이다.

<23> 의 「参る」도 「奉仕スル」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御格子を下ろす」라는 동작 행위를 나타낸다. 이와 같이 상위자를 위해 어떤 일을 해 드리는 동작 행위에 사용되는 「ヲ」格을 취하는 「参る」를 穂田定樹(1966)는 「事を参る」라 하며, 봉사하는 행위가 동작 그 자체가 아닌 구체적인 물건을 가져다 드리는 행위(「差シ上ゲル」)를 나타내는데 사용된 「参る」를 「物の参る」로 규정하고 있다⁷⁾. 「差シ上ゲル」라는 의미를 가지는 「参る」를 살펴보기로 한다.

<24> 大納言、御車寄せ、何かひしめきて、供御参りにける折に、
(卷一、p.6)

<25> 大宮、東二条、准後の御膳参る。准後の陪膳四条宰相、没送左衛門督なり。
次の日は弥生の一日子なり。内、春宮、両院、御膳参る。 (卷三、p.160)

7) 穂田定樹(1966)는 「加持を参る」「御ぐしを参る」「御湯殿を参る」와 같이 하위자가 상위자를 위해 어떤 동작 행위를 봉사할 때 사용되는 「参る」를 「事を参る」로 칭하며, 「御手水を参る」「御くだものを参る」와 같이 동작이 아닌 물건 그 자체를 가져다 드리는 의미를 가지는 「参る」를 「物を参る」類로 구분하고 있다.

(穂田定樹(1966) 「「まゐる」と「まゐらす」」 『国語国文』 35卷5、中央図書出版社、pp.1-12. 참조)

<26> 一院へ、銀の柳筥に沈の御枕を据へて参る。 (卷三、p.135)

「物を参る」를 나타내는 <24>~<26>의 「参る」는 「~ヲ差シ上ゲル」라는 의미를 가지며 『とはすがたり』에서는 이 용례 외에도 「生絹を一」「装束を一」「御太刀を一」「御盃を一」「御衣を一」「物を一」「槌を一」「琴を一」등에 「参る」가 사용되고 있다. 이들 「物を参る」의 「参る」는 「参る」대신에 그 類義語라고 할 수 있는 「~を献上する」나 「~をたてまつる」와 代替⁸⁾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事を参る」와 그 용법을 달리한다.

5. 「参る」(召シ上ガル/オ飲ミニナル)

「奉仕スル」의 의미의 「参る」는 하위자가 상위자를 위해 봉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표현이라면, 이 「参る」의 표현이 직접적으로 봉사를 받는 상위자의 동작 그 자체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전이되어 다음 용례와 같이 「参る」가 「飲む」「食う」「する」라는 행위에 대해 그 동작주(為手)에게 직접적으로 경의를 나타내는 존경어 용법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27> 兩女院御同車にて、御匣殿、御尻に参り給。道にて参るべき御煎じ物を

種成、師成二人して、御前にて、御水瓶二つにしたため入て、 (卷一、p.16)

<28> 御所に、さしたる御心地にてはなく、そこはかたなく悩みわたり給事有て、供御を参

らで、御汗垂りなどしつつ、 (卷二、p.76)

<29> いかにも申せども、齋宮、九献を参ら(a)ぬよし申に、御所、「御酌に参る(b)

べし」とて、御銚子を取らせおはします折、 (卷一、p.59)

<27>의 「参るべき御煎じ物」는 「お飲みになる前じ物」라는 의미로 「参る」가

8) 「宮の御前に琵琶、おとどに箏の御琴まゐりて」(源氏·梅枝)「紫の上に和琴、女今御の君に箏の御琴、宮には···例の手ならし給へるをぞ調べて奉り給ふ。」(源氏·若菜下)
(앞의 논문, 穂田定樹(1966) p.2. 재인용)

「飲む」의 존경어로 사용되고 있다. <28>의 「供御を参らで」는 「供御を招しあがらず」라는 의미로 「参る」가 「食う」의 존경어로 쓰이고 있다. <29>의 「参る」(a)는 「飲む」의 존경어로 「才飲ミナル」 의미인 「参る」가 사용되었으며 「参る」(b)의 「御酌に参る」는 「院、自らお酌をなさろうと」라는 의미이다. 이 「参る」는 최고 신분인 상위자의 동작행위를 나타내기 위해 표현된 것으로 판단된다.

존경의 의미를 나타내는 「参る」는 <27> ~ <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参る」의 동작주는 각각 「女院」「御所」등, 최고 신분인 경우에만 사용된다. 그리고 이 존경어 「参る」는 「参り給ふ」와 「参りさせ給ふ」와 같이 「参る」에 다른 존경어를 접속시킨 이중경어 형식의 표현을 만들 수 없는 특징이 있다⁹⁾.

존경어 형식을 나타내는 「参る」는 <27> ~ <29> 「参る」이외에 본 자료에서는 다음과 같이 「御柿浸しを~」「小供御を~」「酒を~」「御盃を~」등에 사용되고 있다.

<30> 「いたく事過ぬほどに九献、御鞞の中に御装束直さる折、御柿浸し参る事あり。女房して参らせらるべし」と申さる。
(卷二、p.74)

<31> 御心地わびしくて、御衣召し替へなどして、小供御だに参らで、「ここ、あそこ打て」
などで、御寝に成ぬ。雨おびたたく降れば、帰るさの袖の上も思ひやられて。
(卷二、p.82)

<32> 還御なりて後、また酒参りて、酔はせおはしますさまも、今宵はなのめならで、
更けぬれば、又御寝なる所へ参りて、
(卷二、p.82)

<33> 「この御盃を、我々給はるべし」と、女院の御方申させ給。三度参りて、齋宮
へ申さる。
(卷一、p.60)

6. 맺음말

이상, 본 논문에서는 「参る」의 의미분석을 통해 그 용법을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表1>과 같다.

9) 尊敬を表わす「まゐる」に、さらに他の尊敬語のつくことはない。(앞의 책, 宮地幸一(1980) p.33.)

〈表1〉 「參る」의 사용 수 및 의미 분석표

意味 敬語 用法	券 文	一	二	三	四	五	小計
		參上スル	地文	27	45	34	6
謙讓語	對話文	5	8	5	1	2	21
訪ネル/來ル	地文	1					1
丁重語	對話文	2	1				3
參拜スル	地文	3		3	34	14	54
謙讓語	對話文	1	1	1	2	3	8
奉仕スル	地文	8	16	9		2	35
謙讓語	對話文	3	2	3			8
差シ上ゲル	地文	2	4	7			13
謙讓語	對話文	1					1
召シ上ガル/ オ飲ミニナル	地文	4	8	5			17
尊敬語	對話文	1	1				2
總 計		58	86	67	43	34	288

〈表1〉에서 보는 바와 같이 『とはずがたり』에서 「參る」가 「行く」의 겸양어로 「參上スル」와 「參拜スル」라는 의미로 多用되고 있지만, 대화문에 있어서는 청자를 대우하는 丁重語 용법으로 쓰인 용례도 찾아볼 수 있었다. 또한 「參る」는 「參上スル」라는 의미에서 시중을 들다라는 의미인 「奉仕スル」로 그 쓰임을 확대해 나감과 동시에 자동사적 용법에서 「ヲ」格을 취하는 타동사적 용법인 「事

の参る」와 「差シ上ゲル」라는 의미를 가지는 「物の参る」로 「参る」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参る」는 봉사하는 입장에서의 표현에서 직접적으로 시중을 받는 존귀한 사람의 입장으로 표현 초점이 이행되어 <表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존경어 용법의 「参る」도 인정된다.

본 자료에서는 「参る」의 미연형에 사역의 조동사인 「す」가 접속되어 한 단어가 된 「参らす」도 빈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는 금후의 연구과제로 한다.

【참고문헌】

- 都基禎(1993) 「『とはすがたり』의 待遇表現-謙讓語와 그 주변을 중심으로-」 『日語教育』 9, 韓国日本語教育学会, pp.155-176.
- 都基禎(2008) 『とはすがたりの 敬語 研究』 제이앤씨, pp.80-95.
- 穂田定樹(1966) 「『まゐる』と『まゐらす』」 『国語国文』 35卷 5, 中央図書出版社, pp.1-12.
- 穂田定樹(1976) 『中古中世の敬語の研究』 清文堂, pp.309-385.
- 次田香澄(2000) 『とはすがたり(上)(下)』 講談社, (上)pp.19-449, (下)pp.21-417.
- 福田秀一校注(1992) 『新潮日本古典集成 とはすがたり』 新潮社, pp.11-331.
- 三角洋一校注(1999) 『新日本古典文学大系 50 とはすがたり』 岩波書店, pp.3-249.
- 宮腰賢(1986) 『まゐる・まゐらす考』 桜楓社, pp.7-51.
- 宮地幸一(1980) 『ます源流考』 桜楓社, pp.11-59.
- 宮地裕(1981) 「敬語史論」 『講座 日本語学 9 敬語史』 明治書院, pp.9-10.

논문 투고 일자 : 2020. 08. 24.
논문 심사 일자 : 2020. 10. 26.
게재 확정 일자 : 2020. 10. 28.

＜要旨＞

『とほすがたり』の敬語研究
- 「参る」を中心に -

都基禎

「参る」は「行く」の謙讓語で、動作主(為手)が目上の人のもと(受け手)へ行くときに用いられる敬語である。本稿で取り上げる中世鎌倉時代の作品である『とほすがたり』には「御所に参る」「神社へ参る」のように、「参る」が「参上スル」「参拝スル」という意味で使われた用例が頻出する。つまり、「参る」は為手の行く先にある対象(受け手)を敬う敬語として平安期から多用された敬語であった。

しかし、本資料における「参る」の用法を詳しく分析してみると、本来の用法である謙讓語とは異なって聞き手に敬意を表す丁寧語用法として認められる用例があった。

また、「参る」は自動詞的な用法以外に「ヲ」格をもつ他動詞的な用法として、「すでに御格子参る程になりて(巻五、p.228)」のような用例からわかるように、「奉仕スル」という意味で用いられたもの(事の参る)や、「御太刀一参る(巻二、p.7)」のように「差シ上ゲル」という意味での用例(物の参る)も見出すことができた。

さらに、「参る」は「召シ上ゲル」という意味で使われ、「(院)……夕供御参る折(巻二、p.68)」のような用例がある。つまり、「参る」の敬意の方向が受け手尊敬から動作主(為手)を直接敬う尊敬表現(尊敬語)としてまで用いられており、「参る」の意味機能の多用性が認められる。

A study on the honorific language of “*Towazugatari*”
- Focus on “Mairu” -

Do, Ki-Jeong

This paper analyzes the “Mairu” that was used in the “*Towazugatari*” in the kamakura period. “Mairu” is originally used as an honorific language for “Kenjogo” of “Iku”.

First, “Mairu” is well used as an intransitive verb in “*Towazugatari*” meaning “Sanjosuru”(go to the palace), or “Sanpaisuru”(go to the shrine)

Second, “Mairu” is also used with “Hoshisuru”(to serve) and “Sashiageru”(to give) as a transitive verb. This shows that “Mairu” can change from an intransitive verb into a transitive verb.

Lastly, “Mairu” can be used to mean “Meshiagaru”(to eat), which is an honorific language(Sonkeigo) for treating the subject directly.

In summary, these examples show that “Mairu” has many meanings and usages.